

## 3. 문장과 글쓰기

### (1) 문장의 짜임

#### 문법 집중 연습 문제

4~5쪽

- 01 (1)㉠ (2)㉡ (3)㉢ (4)㉣ (5)㉤ (6)㉥    02 문장 성분, 주성분  
 03 (1)독서의 (2)뛰어난 (3)참 (4)매우, 빨리 (5)과연, 훌륭한  
 04 (1)주어 (2)목적어 (3)관형어 (4)보어 (5)독립어  
 05 (1)보어 (2)서술어 (3)목적어 (4)독립어 (5)관형어 (6)부사어  
 06 (1)-응답 (2)-감탄 (3)-부름                    07 홀문장, 겹문장  
 08 (1)홀 (2)겹 (3)홀 (4)겹 (5)겹                09 (1)-이어진문장 (2)-안은문장  
 10 이어진문장: ㉠, ㉡, 안은문장: ㉢, ㉣    11 (1)-대등하게 이어진문장  
 (2)-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12 (1)대(2)중(3)대(4)중(5)중(6)대  
 13 (1)-명사절 (2)-관형절 (3)-부사절 (4)-서술절 (5)-인용절  
 14 (1)서술절 (2)명사절 (3)관형절 (4)부사절  
 15 직접 인용, 간접 인용    16 (1)㉠ (2)㉡

####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6~7쪽

- 01 ㉠: 서술어 ㉡: 보어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01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 02 '지어는 현 책을 팔았다.'에서 '현'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이다. ①의 '오늘은', ⑤의 '아이스크림'은 주어, ②의 '내렸다'는 서술어, ④의 '바둑을'은 목적어이다.
- 03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04 ①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원인), ②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나열), ④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조건),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대조)이다.
- 05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이어진문장을 만들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된다.
- 06 '수아는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관형절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이 '모습'을 꾸며 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07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의 앞 문장을 뒤 문장에 관형절로 안기게 하여 '그 소설'을 꾸미게 함으로써 어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08 ㉠에 동생이 읽는 소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 09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관형절 '카레가 들어간'이 '떡볶이'를 꾸며 주고 있다.

#### 또또! 나오는 문제

8~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몹시 내린다. / 비가 몹시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11 ㉤    12 ㉣    13 ㉢    14 ㉢    15 ㉣  
 16 지후는 은소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말했다.

- 01 '과랏다'는 형용사이므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머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늘이 과랏다.'는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 02 문장의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동생이 새 옷을 입었다.'는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관형어는 부속 성분이다.
- 03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주어+보어+서술어', '네, 아기가 우유를 먹었어요.'는 '독립어+주어+목적어+서술어', '할머니께서 옛 친구를 만나셨다.'는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보기>의 문장에 부사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04 '매우'는 부사어 '빨리'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 05 ㉠의 주어는 '버스가', 서술어는 '달린다'이다. ㉡의 주어는 '우리는', 서술어는 '보았다'이다. ㉢은 '겨울이-오면', '기운이-내려간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은 '지우는-부르고', '민수는-춘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 06 '영서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①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②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④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7 ②는 안은문장(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나머지는 이어진문장이다. ①, ③, 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④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8 제시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9 ㉠은 홀문장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0 제시된 두 홀문장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나열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하나의 이어진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 11 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에 조사 '이'가 붙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12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 '혜수가 노래를 부

르기'에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혜수가 노래를 부르는'이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은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3 '이것은 내가 읽은 소설책이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내가 읽은'이 '소설책'을 꾸며 주고 있다. ③에서 '내가 좋아하는'은 체언 '음식'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①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②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④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⑤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4 <보기>의 문장은 모두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각각 안긴문장은 '눈이 부시게', '목이 빠지게'이다.
- 15 '정재는 목이 쉬도록 청균을 응원했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부사절 '목이 쉬도록'이 '응원했다'를 꾸며 주어 어떻게 응원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누가 누구를 응원했는지는 ㉠에도 나타나므로 ②, ③은 ㉠을 ㉡으로 고친 의도로 적절하지 않다.
- 16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말 뒤에 조사 '고'가 붙는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10~11쪽

- 01 ③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 겹문장 ㉡: 홀문장    07 ①      08 ⑤      09 ①  
 10 ②      11 ④      12 나는 목이 쉬도록 노래했다.  
 13 ③      14 ②      15 ⑤

- 01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③에 제시된 개념은 서술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 02 '연필이'는 보어로 주성분이다. ①의 '따뜻한', ③의 '새'는 관형어, ⑤의 '매우'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②의 '재원이'는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다.
- 03 '서우는 음악가가 되었다.'에서 주어는 '서우는'이고 '음악가가'는 보어이다.
- 04 밑줄 친 문장 성분은 모두 독립어로,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며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낸다.
- 05 ③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짝은 '태풍이-오면', '행사는-취소된다'이다.
- 06 ㉠의 문장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고, ㉡의 문장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 07 '이곳은 춥지만 저곳은 따뜻하다.'는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사용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8 ①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②는 홀문장, ③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④는 안긴문장에 관한 설명이다.

- 09 ①은 서술절 '키가 크다'를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②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③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④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0 ㉠은 명사절 '진주가 말하기'에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은 관형절 '언니가 기뻐하는'이 '모습'을 꾸며 주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1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명사절 '함박눈이 펄펄 내리기'가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12 부사형 어미 '-도록'을 사용하여 '나는 목이 쉬었다.'를 '나는 노래했다.'에 절의 형태로 안기게 하여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 수 있다.
- 13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은 상회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인용한 말 뒤에 조사 '고'를 붙여 만든 문장이고, ㉡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 14 <조건>은 차례대로 겹문장,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인 ②이다. ①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③은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④,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15 ㉠은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으)려고'를 사용하여 ㉠의 두 홀문장을 연결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12쪽

- 01 독립어. 부름, 감탄, 응답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02 부사어, 주어, 관형어, 서술어  
 03 '깨끗이'는 부사어로, '닦았다'를 꾸며 주고 있다.  
 04 나는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간다. / 나는 다리가 아프니 계단을 못 올라간다.  
 05 성주가 잎이 큰 화초를 기른다.  
 06 '지수가 여행을 가려고 짐을 꾸렸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나타난 행위의 의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07 '토끼는 앞발이 짧다.'는 '앞발이 짧다'라는 안긴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8 ㉠은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인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원인을 드러낸다.

- 01 제시된 문장에서 '응', '어머', '홍수야'는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며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 02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 '그는'은 주어, '훌륭한'은 '예술가'를 꾸며 주는 관형어, '예술가로구나'는 서술어이다.
- 03 '태규가 책상을 깨끗이 닦았다.'는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 문장에 쓰인 부속 성분

은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며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 04 ㉠이 행위의 원인이 되게 하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 ‘-(으)니’ 등을 사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 05 어떤 화초를 기르는지 드러내려면 전체 문장에서 안겨 있는 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과 ㉡에서 ‘화초’라는 단어가 겹치므로 ㉢에서 이를 생략하여 ‘성주가 있어 큰 화초를 기른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06 제시된 문장은 ‘지수가 여행을 가다.’와 ‘지수가 짐을 꾸렸다.’가 의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으)려고’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07 ‘토끼는 앞발이 짧다.’에서 안긴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발이 짧다’이며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08 ㉠은 ㉡의 두 홑문장을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어서’로 연결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표현하였다.

## (2)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

###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15~16쪽

-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④
- 06 ⑤      07 ④      08 ⑤

- 01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짜깁기해서 자기가 쓴 글처럼 속이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 02 같은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같은 학교 3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 03 스마트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 보고,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04 <보기>에서 ‘나’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꾸며서 글을 썼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쓰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05 관찰·조사·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면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 06 ‘우리 학교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라는 주제에는 조사 대상의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하는 조사 보고서가 적합하다.

- 07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므로 설문 조사는 적합한 조사 방법이다.
- 08 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분석해야 한다.

### 또또! 나오는 문제

17~19쪽

- 01 ④      02 ⑤      03 ②      04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힌다.      05 ⑤      06 ①      07 ①
- 08 ③      09 ③      10 ①      1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고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01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한 학생이 설문 조사 결과를 고치자고 제안하였으나, 다른 학생이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 02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는 내용이 정확한지, 믿을 만한 출처인지 등을 확인하여, 여러 자료를 짜깁기하지 않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활용할 수 있다.
- 03 독자들이 보고서에 제시된 조사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쓰면 독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04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써야 한다.
- 0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 중 평일에 스마트폰을 한 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은 4.3%이다.
- 06 ㉠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의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소제목으로는 ①이 적절하다.
- 07 스마트폰 보유율과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조사 결과를 각각 수치가 높은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 08 (가)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나)에 이어 제시될 조사 결과로는 ③이 적절하다.
- 09 (가)에서 15.2%의 학생이 주말에 다섯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10 (나)에서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요약하여 제시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11 모둠의 설문 조사 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20~22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④      08 ④      09 신뢰할 만한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0 ②

- 01 (가)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룬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인식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02 (가)에 나타난 조사 동기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자는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한다고 답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03 ㉠에서 글자 색을 달리하여 강조한 부분은 수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 04 (가), (나)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정리하고 각각 수치가 높은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 05 제시된 그래프는 (나)의 설문 조사 결과를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6 (가), (나)에서 설문 조사 결과 중 일부를 큰 글자로 강조하여 제시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가), (나)의 글쓴이가 친구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7 제시된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 보고서를 쓸 때 고려할 점은 ④이다. ①은 실험 보고서를 쓸 때, ②, ③, ⑤는 관찰 보고서를 쓸 때 고려할 점이다.
- 08 제시된 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나,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9 스마트폰을 주말에 다섯 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학생들의 응답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외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 10 스마트폰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로 '동영상 시청·음악 감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까닭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23쪽

- 01 (가): 스마트폰 보유율 (나):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다): 스마트폰의 용도 (라), (마):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
- 02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 학업 문제
- 04 설문 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1 (가)는 스마트폰 보유율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나)는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다)는 스마트폰의 용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라)~(마)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02 (나)를 통해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 중 평일에는 72.8%가 하루 두 시간 이상, 주말에는 87.2%가 하루 두 시간 이상, 29.1%는 네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가운데 68.1%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03 (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마)에서 스마트폰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 중 그 까닭으로 '학업 문제'를 꼽은 학생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04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수치와 그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더 읽어 보기-쓰기 윤리에 대하여**

**또또! 나오는 문제**

25쪽

01 ④      02 ④      03 ⑤      04 자신이 써서 발표했던 글의 일부를 그것이 어디에 발표된 어떤 글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새로 쓰는 글에 넣는 것은 자기 표절이기 때문이다.

- 01 민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독후감을 찾고 그 중 하나를 골라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과제로 제출하였다. 이는 글쓴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독자를 속이는 행동이므로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02 (다)에서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며, 이때 '글을 쓰는 과정'이란 표현하는 단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쓰기의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 0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것이 일부일지라도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04 이미 발표된 자신의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대단원 종합 문제

26~29쪽

- 01 ㉠      02 '뜨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햇볕이 뜨겁다.'의 기본 구조는 ㉠에 해당한다.      03 ㉡      04 ㉢      05 ㉣      06 ㉤
- 07 ㉠      08 ㉡      09 ㉢      10 ㉣      11 ㉤
- 12 안긴문장은 '코가 길다'이며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13 ㉡      14 ㉣      15 ㉤      16 주아는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17 ㉡      18 ㉣      19 ㉤
- 20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쓰면 안 돼. / 글을 쓸 때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      21 ㉤      22 ㉢      23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4 ㉢

- 01 <보기>는 '누가/무엇이+무엇이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의 '경찰이다'는 '토요일이다'와 같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 ㉢은 '누가/무엇이+어떠하다', ㉣, ㉤는 '누가/무엇이+어찌하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2 우리말 문장의 기본 구조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뜨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누가/무엇이+어떠하다'의 문장 구조에 해당한다.
- 03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은 주성분이다. ㉣의 '멋진'은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이다. ㉠의 '밝다'는 서술어, ㉡의 '경미가'는 주어, ㉢의 '꽃다발을'은 목적어, ㉤의 '유치원생이'는 보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04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할머니께서 어제 옛 친구를 만나셨다.'에서 '옛'은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할머니께서'는 주어, '어제'는 부사어, '친구'는 목적어, '만나셨다'는 서술어이다.
- 05 <보기>에서 설명한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며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의 '네'는 응답을 나타내는 독립어이다. ㉠의 '밝다'는 서술어, ㉡의 '얼음이'는 보어, ㉣의 '우유'는 목적어, ㉤의 '독서의'는 관형어이다.
- 06 '성희가 목이 터지게 소리쳤다.'는 부사절 '목이 터지게'를 안고 있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07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은 부사절 '땀이 나도록'을 안고 있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08 '찬호는 노래를 부르고 시아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앞 절과 뒤 절이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찬호는'과 '짜'를 이루는 서술어는 '부르고'이다.
- 09 ㉠,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10 ㉡은 앞 절과 뒤 절이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의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 11 명사절 '농사가 잘되기'에 조사 '를'이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12 안긴문장은 서술절 '코가 길다'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13 '내가 읽은'이 체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은 서술어의 기능, ㉢은 부사어의 기능, ㉣은 목적어의 기능, ㉤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
- 14 '그는 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관형절 '새가 우는'이 '소리'를 꾸며 주고 있다.
- 15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관형절 '인기가 많은'이 '그 만화'를 꾸며 주어 '그 만화'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은 홑문장이다.
- 16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주아는'으로 동일하므로 뒤 절에서 주어를 생략하여 '주아는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고 만들 수 있다.
- 17 제시된 만화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규범, 즉 쓰기 윤리를 주제로 한 만화이다.
- 18 만화의 내용을 통해 조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 19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차집기하여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20 ㉠의 학생은 설문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하였고, <보기>의 소미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꾸며 썼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조언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21 (라)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사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22 (가)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에 ㉠, ㉡,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는 (가)에 나타난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문항이다.

- 23 (다)에서 15.2%의 학생이 주말에 다섯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음을 밝히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위험이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 24 (마)에는 (다), (라)를 쓸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가 나타나 있다. 이로 보아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을 알 수 있다.

## 4. 점검과 조정

### (1)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

####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32~33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③

- 01 자신의 읽기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읽기 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02 ㉠, ㉡은 '읽기 중'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 03 글의 난이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좀 더 쉬운 글을 찾아 읽거나 참고 서적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제목에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제목을 읽고 떠올릴 만한 질문으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5 같은 글을 여러 번 읽더라도 읽기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④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06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은 규모의 경제가 재화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글이다.
- 07 글에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까닭은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산량이 많은 대기업이 생산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비해 더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08 독자는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기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내용이 비슷하지만 좀 더 쉬운 글을 찾아 읽는 방법으로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글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 때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읽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 번 다시 읽어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나갈 수 있다.

#### 또또! 나오는 문제

34~35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 01 (사)에서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 02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03 ④는 '읽기 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 04 <보기>에서는 글을 읽은 뒤 그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 05 글을 읽다가 글이 자신의 읽기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읽기 목적에 맞는 다른 글을 찾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을 읽으면서 읽기 목적을 다양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06 ㉡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읽은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07 ㉠은 글을 읽으며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는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08 (나)에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튼튼! 만점 도전 문제

36~37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 읽는다.      07 ②      08 ⑤

- 01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신적 활동의 점검과 조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독서 환경 등은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02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 것과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 03 ㉠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읽기 목적과 이에 적합한 읽기 방법을 말하고 있으므로, ㉠에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4 ㉡에는 읽은 내용을 요약한 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으려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모습은 ㉡에 제시되지 않았다.
- 05 (라)를 통해 생산비가 줄면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는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6 글이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다른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다.
- 07 <보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8 글을 읽는 물리적 환경, 소음 등은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서 환경에 해당하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38쪽

- 01 ㉠: 읽기 목적 ㉡: 배경지식 ㉢: 요약      02 '읽기 전' 단계에서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이다.
- 03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읽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04 ㉣: 글, 쉬운 글을 찾아 읽는다. / 자료를 참고하며 읽는다. ㉤: 독자, 읽기를 멈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는다. / 가볍게 스토리칭을 하고 다시 읽는다. ㉥: 독서 환경,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 소음을 차단한다.

- 01 '읽기 전' 단계에서는 먼저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고,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02 ㉢에서는 글의 제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읽기 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03 ㉤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읽기 목적을 떠올리며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점검하고, 읽기 방법을 메모하며 읽기로 조정하고 있다.
- 04 ㉣는 글의 난이도가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점검과 조정의 대상은 글이며,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내용이 비슷하지만 더 쉬운 글을 찾아 읽는 방법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는 독자의 생리적 상태가 문제이므로 점검과 조정의 대상은

독자이며, 육체적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는 글을 읽는 환경이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점검과 조정의 대상은 독서 환경이며, 소음을 차단하거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청중을 고려하며 자신 있게 말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학습 활동**

40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④

- 01 ㉠에는 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연우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말하기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2 연우는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체 모방 기술'을 쉽게 풀어 말하려 하므로 연우가 고려한 점으로는 ②가 적절하다.
- 03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4 청중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까 봐 불안을 느낄 때에는 ⑤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청중의 반응을 살펴야 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05 청중 앞에서 말할 때에는 청중의 반응을 살펴 말할 내용의 양이나 말하기 순서 등을 조절해야 하며,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을 쉽게 바꾸는 등 말하기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또또! 나오는 문제**

41쪽

- 01 ②      02 ③      03 ③      04 긍정적인 생각

- 01 (나)에서 연우가 지난번 사회 시간에 발표할 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연우에게 공식적인 말하기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연우는 친구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을 말하기 주제로 정하고, 친구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했다.
- 03 (나)의 첫 번째 장면에서 연우가 발표 자료 준비는 마쳤지만 친구들 앞에서 말할 생각에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 말하기를 멋지게 끝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난 잘 해낼 거야.', '작은 실수쯤은 괜찮아.'와 같이 생각하라는 언니의 말을 고려할 때 ㉠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튼튼! 만점 도전 문제

42쪽

- 01 ㉢    02 ㉤    03 ㉡    04 ㉤    05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 화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01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고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등을 조절하며 말해야 한다.  
 02 연우는 청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주삿바늘의 굵기를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03 말할 내용을 잊을까 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거나 주요 내용을 종이에 적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  
 04 연우는 친구들이 주삿바늘의 굵기를 가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친구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05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은 화자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서술형

43쪽

- 01 ㉠: (반) 친구들 ㉡: 친구들의 관심(흥미)  
 02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말이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친구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할 때 쉽게 풀어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3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 '난 잘 해낼 거야.', '작은 실수쯤은 괜찮아.'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04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거나 (작은) 종이에 주요 내용을 적어 둔다.  
 05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심호흡을 하였다. / 심호흡을 하고 '나는 잘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 01 연우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하기를 준비하였으며, 청중인 친구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말하기 주제를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로 정하였다.  
 02 연우는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03 ㉠처럼 실수할까 봐 불안할 때에는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 04 ㉠처럼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불안을 느낀다면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말할 주요 내용을 작은 종이에 적어 두는 것이 좋다.

- 05 '소개하는 말하기' 발표 당일에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연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더 읽어 보기-발표하기 무서워요!

또또! 나오는 문제

45쪽

- 01 ㉡    02 ㉣    03 ㉤    04 ㉣

- 01 (다)를 통해 알프레드의 발표 순서가 끝에서 두 번째임을 알 수 있다.  
 02 알프레드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알프레드는 대왕 고래에 대해 조사하면서 긴장감을 잊었고, 발표를 시작한 뒤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04 (라)에는 친구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닫고 용기를 얻고, 말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는 알프레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의 긍정적인 태도는 말하기 불안 극복에 도움이 되며, 말하기 불안은 대체로 화자가 말하기 시작하면 점차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46~49쪽

- 01 ㉤    02 ㉢    03 ㉤    04 읽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05 ㉡    06 ㉣    07 ㉣    08 대량 생산을 하면 (개당) 생산비가 줄어든다.    09 ㉡    10 청중의 관심(흥미)을 고려하였다.    11 ㉣    12 ㉠    13 ㉢    14 ㉤  
 15 ㉠    16 ㉢    17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태도)

- 01 (라)에서 독자가 자신의 읽기 상황에 따라 읽기의 과정별 활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2 ㉠, ㉣는 '읽기 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고 ㉡, ㉢는 '읽기 중'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03 ㉤는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는 것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04 글을 읽을 때에는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데 ㉔의 읽기 목적은 <쓰름도>에 관해 알아보려는 것이고 <보기>의 읽기 목적은 여가를 보내려는 것이므로 읽기 방법이 다른 것이다.
- 05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럽다면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독서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 06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것은 총생산 비용이다. 총생산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개당 생산비를 구할 수 있다.
- 07 읽기 목적은 글을 읽기 전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글이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읽기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 읽어야 한다.
- 08 (다)를 통해 기업이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생산비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 09 연우가 언니의 도움을 받아 발표 자료를 만드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0 연우는 반 친구들이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며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 11 ㉔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언니가 조언한 방법으로, 연우가 느낀 말하기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
- 12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연우에게 언니가 '난 잘 해낼 거야.'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㉑는 적절하지 않다.
- 13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말하기 불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㉓는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알프레드에게 해 줄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14 연우가 하룻길에 '처음에는 떨렸지만 친구들이 재미있게 들어 줘서 잘 마칠 수 있었어.'라고 한 말을 통해 발표할 때 처음에는 말하기 불안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15 연우는 친구들의 반응을 살핀 후 친구들이 주삿바늘의 굵기를 가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해하기 쉽게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16 앞머리로 눈을 가리는 것은 알프레드가 불안과 긴장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이다.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는 알프레드의 모습에서 알프레드의 말하기 불안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7 ㉔를 통해 친구들이 재미있게 들어 줘서 연우가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었고, ㉖를 통해 친구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알프레드가 용기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우와 알프레드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SPEED 핵심 정리**

50~53쪽

**3. 문장과 글쓰기**

- 01 어찌하다, 어떠한, 무엇이다      02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03 홀문장, 겹문장      04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      05 (1)-㉔ (2)-㉑      06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07 (1)-㉑ (2)-㉔ (3)-㉔      08 인용, 사실, 예의      09 그래프, 출처      10 보고, 정확성, 목적      11 주제, 분석      12 객관적      13 목적, 결과

**4. 점검과 조정**

- 01 목적, 배경지식, 예측, 질문, 중심 내용, 요약, 평가      02 목적, 수준, 중심      03 독자, 글, 독서 환경      04 읽기 목적, 제목, 읽기 목적, 예측, 내용      05 생체 모방 기술, 말하기 불안      06 청중, 반응      07 흥미, 주삿바늘      08 불안      09 실수      10 긍정적, 심호흡      11 긍정적

**FINAL TEST 1회**

54~58쪽

- 01 ㉔      02 ㉓      03 ㉒      04 ㉒      05 ㉔의 의미가 더 자세하다. '보글보글'이 '끓는다'를 꾸며 주어 된장찌개가 어떻게 끓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06 ㉔      07 ㉔      08 ㉑
- 09 ㉒      10 '우리는 공원에서 고양이를 보았다.'는 홀문장이다. 왜냐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11 ㉒
- 12 ㉔      13 ㉓      14 ㉑      15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16 ㉓
- 17 ㉓      18 ㉒      19 ㉓      20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이다.      21 ㉓
- 22 ㉓      23 ㉒      24 ㉔      25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말이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풀어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01 ㉔의 '깨끗하다'는 '어떠하다'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 02 ㉔의 '깨끗이'는 부사어로 용언 '닦았다'를 꾸며 주고 있다. ㉔에서 관형어 '모든'이 '그릇'을 꾸며 주고 있다.
- 03 문장의 주성분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다. '은수는 물을 마셨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㉑는 '주어+부사어+서술어', ㉓는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㉔는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㉕는 '주어+관형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4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에서 부사어 '매우'는 부사어 '빨리'를 꾸며 주고 있다.
- 05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에서 '보글보글'은 '끓는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이다.
- 06 '나는 당근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당근을 싫어한다.'는 앞 절과 뒤 절이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7 <보기>의 밑줄 친 '내가 읽은'은 체언인 '소설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의 밑줄 친 '그가 과자로 만든' 역시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①의 '목이 같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②의 '그가 범인임'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③의 '바람이 불기'는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⑤의 '북반구와 다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08 ㉠은 서술절 '키가 크다'를 안고 있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수는'과 짝을 이루는 서술어는 '키가 크다'이다.
- 09 ㉠은 안긴문장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소설을 읽는'이 체언 '숙제'를 꾸며 주고 있다.
- 10 '우리는 공원에서 고양이를 보았다.'는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11 (가)에서 설문 조사 대상에 관해 모둠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2 조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이면 안 되는 것은 쓰기 윤리에 해당하지만 이는 (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 13 (나)에서 설문 조사와 자료 조사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14 ㉠의 학생은 설문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함을 조언할 수 있다.
- 15 (나)에 나타난 조사 목적을 고려할 때 ㉠은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한 질문임을 알 수 있다.
- 16 읽기 활동이 지닌 단점은 소개하지 않았다.
- 17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이 아니라 글을 읽은 후에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 18 (다)를 통해 독자는 글을 읽는 도중에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하며 읽기 과정을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19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읽기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읽기 목적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 <보기>의 현우는 글의 제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읽기 전' 단계에서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에 해당한다.
- 21 연우가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으나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2 연우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을 하기로 계획하는 내

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3 연우는 발표 자료를 만든 후, 지난번 사회 시간에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며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 있다.
- 24 언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실수쯤은 괜찮아.'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하였다.
- 25 연우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말이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FINAL TEST 2회

59~63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⑤      05 ㉠에 쓰인 독립어는 '준우야'이고, 부름을 나타낸다.      06 ②      07 ⑤
- 08 ⑤      09 ④      10 안긴문장은 '밤이 새도록'이며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1 ②      12 ⑤      13 ④
- 14 ⑤      15 (라)에 들어가야 한다.      16 ②      17 ④
- 18 ③      19 ①      20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읽기 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21 ⑤      22 ⑤      23 ②      24 ③
- 25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은 화자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1 <보기>의 문장은 '누가/무엇이+어떠하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와 같은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①이다. ②, ⑤는 '누가/무엇이+어찌하다', ③, ④는 '누가/무엇이+무엇이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2 ㉠의 '책이'는 보어이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한다.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 03 ④의 '정말'은 부사어이다. ①, ②, ③, ⑤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관형어이다.
- 04 ㉠의 '부지런히'는 부사어로, 부사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
- 05 ㉠의 '준우야'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 독립어로서, 부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06 ②는 주어는 '동생이', 서술어는 '한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①, ③, ④, 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①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③, ④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07 ⑤는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①~④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08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로 명사형 어미 '-(으)르', '-기'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게', '-도록'은 부사형 어미이다.
- 09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말 뒤에 조사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한 말 뒤에 조사 '고'가 붙는다.
- 10 '밤이 새다'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 '밤이 새도록'이 '떠들었다'를 꾸며 주어 안은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1 (나), (다)에서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 12 (가)~(라)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외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들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이하인 45.7%이다.
- 14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는 내용이 (라)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 15 (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고 밝힌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그 까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므로 (라)에 이어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가)에서 '읽기 전' 단계에서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을 만들고 '읽기 중' 단계에서 질문의 답을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17 글을 읽기 전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글을 읽은 뒤에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 18 <보기>에는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 19 (다)에 나타난 읽기 목적은 김홍도의 그림 <씨름도>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메모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 20 ㉞에서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글을 읽은 후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 21 연우가 발표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아도 아프지 않은 주삿바늘을 개발 중이라는 발표 내용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일 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 22 연우는 발표 직전에 자신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3 연우는 청중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발표 주제를 정하고 청중의 지식수준, 내용 이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하고 있다. 청중의 성별을 고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24 연우는 친구들이 50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의 굵기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삿바늘의 굵기를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25 연우가 말하기 불안을 느꼈지만 청중의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FINAL TEST 3회

64~68쪽

- 01 ①      02 ③      03 ③      04 ⑤      05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6 ⑤      07 ⑤
- 08 ②      09 ③      10 '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11 ③      12 ①      13 ⑤      14 ②      15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 보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16 ④      17 ④      18 ②      19 ④      20 읽기를 멈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21 ⑤      22 ⑤
- 23 ③      24 ⑤      25 청중의 관심율(흥미율) 고려하였다.

- 01 ㉠~㉣은 모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 ㉣은 '주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02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아니다.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는 경우는 있다.
- 03 <보기>는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매우'는 부사어 '빨리'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①의 '방안이'는 주어, ②의 '그'는 관형어, ④의 '아이스크림을'은 목적어, ⑤의 '시작했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 04 ⑤의 '열심히'는 '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 05 ㉠에서 관형어 '현'은 체언 '신발'을 꾸며 주고 있고, ㉣에서 관형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은 체언 '꽃'을 꾸며 주고 있다. ㉡에서 관형절 '윤주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은 체언 '소문'을 꾸며 주고 있다.
- 06 '-거나'는 선택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 07 ㉞은 관형절 '달리기를 잘하는'이 '민수'를 꾸며 주어 '민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 '민수'가 대 회에 참가한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08 <보기>는 부사절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는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 '눈이 부시게'가 '아름다웠다'를 꾸며 주고 있다. ㉡,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09 <보기>의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이와 종류가 같은 문장은 ㉢이다. ㉠은 홑문장, ㉡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0 <보기>의 문장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관형절 '누나가 아끼던'이 체언 '책'을 꾸며 주고 있다.
- 11 (가)~(라)의 내용을 통해 설문 조사와 자료 조사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 12 주말에 스마트폰을 '네 시간 이상 다섯 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대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주말에 스마트폰을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대답은 15.2%이다.
- 13 (다)에서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요약하고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14 이 보고서는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15 이 보고서를 쓴 조사자는 독자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16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독서 환경 등은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자는 글을 읽는 도중에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 17 작가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18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읽기를 중단하고 내용이 비슷하지만 더 쉬운 글을 찾아 읽는 것이 적절하다.
- 19 사무실 임차료의 평균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다.
- 20 육체적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읽는 것이 적절하다.
- 21 연우가 발표 중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22 (가)에서 언니가 연우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작은 실수쯤

은 괜찮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 23 연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공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높임말을 사용하여 발표하고 있다.
- 24 연우는 주삿바늘의 굵기가 50마이크로미터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머리카락의 굵기와 비교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 25 연우가 친구들의 관심, 흥미를 고려하여 '소개하는 말하기'의 주제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